

경기 문화 재단 다문화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추진

[2009-11-09 오전 11:41:46]

경기문화재단(이사장 김문수)이 우리 사회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살아가고 있는 외국 이주민들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해 상호 문화적 이해와 상생을 도모할 수 있는 다문화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다문화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은 일자리, 결혼, 유학 등 다양한 이유로 한국에 온 이주민들중 문화예술 활동에 관심이 있는 개인과 커뮤니티를 발굴,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 5월까지 추진된다.

앞서 재단은 지난 7월초부터 국내외 다문화 사업과 담론, 현장의 쟁점 등을 살펴보기 위한 1차 자문회의 개최를 시작으로 그동안 다문화 현장 참관과 기획회의,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2차 자문회의 등을 거쳐 지난 8월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일련의 과정을 통해 재단은 현재까지 이루어진 다문화 관련 사업들이 주로 이주민들이 한국에 조기 적응하도록 안내하는 타성적인 문화교육 중심인 반면 이주민 자신들이 주체가 된 문화 활동 기회는 부족했다는 점에 착안했다.

이에 따라 경기문화재단은 ▶이주민 문화리더 육성프로젝트 ▶다문화커뮤니티 문예활동지원 ▶다문화캠프 개최 등 크게 3부분으로 다문화커뮤니티 활성화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문화리더 육성프로젝트'는 이주민 공동체 및 이주예술가의 활동범위 확대를 위한 ▶문화리더 워크샵과 ▶동네방네 콘서트 ▶인터내셔널 유스 캠프등을 개최해 문화예술에 관심있는 개인과 다문화 커뮤니티 등을 발굴하고 그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주민 문화리더 워크샵은 다양한 문화체험 및 교육을 통해 질높은 문화기획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15명을 섭외했으며 다문화 커뮤니티와 지역이주민센터 추천을 통해 총 25명 규모로 모집, 내년 5월까지 5~10회에 걸쳐 개최할 계획이다.

동네방네 콘서트는 이주민 밀집지역 등을 찾아가는 다문화 콘서트로 기획단계부터 이주민을 참여시켜 문화에 대한욕구를 증진해 나갈 것이다. 이 콘서트는 한국에 거주하는 해외 아티스트와 국내 연주자, 다문화 밴드 등으로 구성해 총 5회 내외에 걸쳐 작은 음악회, 악기 만들기, 연주체험 기회를 갖게 된다.

이 같은 문화리더 육성 프로젝트에는 이주노동자 밴드 '스탁크랙다운'과 국악퓨전보컬그룹 '아나야', 마석 방글라데시 연극모임, 버마 행동연대, 포천 스리랑카 친구들 등 14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다문화커뮤니티 문예활동 지원은 연극, 무용, 전시 등 자발성있는 문예활동 발표 기회를 지원하는 문예동호회 지원과 문화기획프로그램 및 커뮤니티 아트 활동지원이 추진된다.

또한 사업이 마무리 되는 내년 4월~5월에는 그동안 육성된 문화예술 동호회 및 기획사업, 다문화커뮤니티 등이 모두 참여한 '다문화캠프' 축제를 개최해 그간의 성과 발표 및 다문화마켓, 축하공연, 문화 체험 등 색다른 다문화 축제도 개최할 계획이다.

경기문화재단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여건이 열악해 현실화 되지 않고 있는 다문화 커뮤니티의 문화활동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더이상 이방인이 아닌 우리 사회의 일원이 되려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신 혁 기자.

상기 기사는 주간신문 서부뉴스 11월 16일자 와 포털사이트 daum(뉴스-안산), 오마이 뉴스에도 함께 보도되어 언론의 기능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가장 빠른 뉴스로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제보e-mail:kyunsik@hanmail.net hp:010-5339-6943

단원(rlarbstlr@naver.com)

※ 이 기사 주소 : <http://www.asinews.co.kr/ArticleView.asp?intNum=7841&ASection=001001>

[인쇄하기] [닫기]